

무궁화의 모든 것 다룬 이색 기획출판

柳達永박사와 廉道義교수의 師弟 공동저작

나라꽃 무궁화

學園社 / B5변형/426면/4800원



꽃도 책이 된다. 꽃에 관한 책이라면 원예용 실용도서를, 꽃에 얽힌 古事나 사연, 문학작품을 얘기할 땐 국문학 관련서나 소설만을 생각하던 때는 지났다. 「나라꽃 무궁화」는 어떤 주제를 두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기획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新刊.

우리나라꽃이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어우러져 있지 못하는 무궁화. 그 연구에 평생을 몸바쳐 온 柳達永박사(76·서울대 명예교수, 한국 무궁화 연구보급회 회장)가 廉道義교수(43·서울농대)와 함께 펴낸 師弟의 공동저작물이다.

저자 柳達永박사는 나라꽃인 무궁화가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천대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와 해방 후부터 연구와 육종을 거듭, 수 많은 신품종을 개발해낸 이 분야의 개척자. 廉道義교수는 柳박사의 제자로 그 뒤를 이어 무궁화 종자개발에 몰두해 오고 있다.

이 책의 편집은 다양한 컬러 화보와 그만큼 다양한 내용 구성에 특징이 있다. 나라꽃의 유래, 자생지와 명칭, 무궁화가 나라꽃인가 하는 시비론, 그 의학적 효능과 식품으로서의 가치, 무궁화 연구와 育種 등 역사적인 것은 물론이고 무궁화에 관한 고려조~개화기까지의 詩文과 시가, 일제시대의 무궁화詩文, 독립군들의 무궁화노래, 현대인의 시 시조 수필 등이 방대한 분량으로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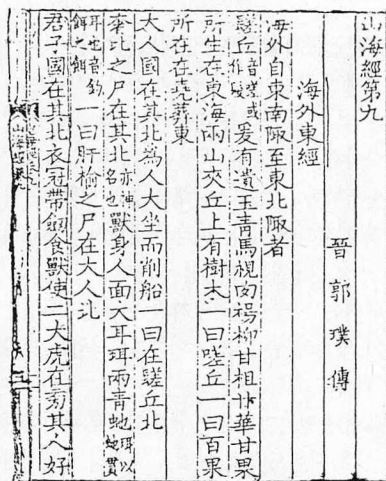
예를 들면 1916년 丹齋 申采浩가 발표한 「꿈하늘이란 소설에 수만길이나 되는 무궁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영웅인 을지문덕장군과 노래로 화답하는 장면이 있다.

을지문덕이 그 크나큰 무궁화꽃을 바라보고 비장한 목소리로 읊는 노래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어이해 오늘날은

이 꽃이 이다지도 여위었느냐

이 몸도 당시의 살수 평양 모든 싸움에 팔뚝으로 빗장삼고 가슴이 방패되어 꽃밭의 울타리 노릇해



BC 2 세기경의 중국문헌 「山海經」·한반도에 무궁화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60여종에 달하는
나라꽃 무궁화의 명칭과 유래.
자생지, 의학적 효능과
식품으로서의 가치, 식물학적
연구와 育種法 등은 물론이고
무궁화에 관한
高麗朝~현대까지의
詩歌와 문학작품까지 방대한
분량으로 엮어 놓았다.

西方의 더러운 물이
조선의 불빛에 물들지 못하도록
젖먹는 힘까지 들었도다.
이 꽃이 어이해
오늘은 이 꽃이 되었느냐」

여기에 파리한 얼굴의 무궁화가 눈물 흘리며 답장하는 대목이 단재 신채호의 불타는 애국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또 이 책에 수록된 도판부분에는 옥토끼, 일편단심, 평강공주 등 이름도 다채로운 각종의 무궁화를 컬러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어, 무궁화라곤 흰색과 분홍색 두 종류밖에 모르고 있

던 무식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자태에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한다. 무궁화의 여러 면모를 소개한 1·2부는 柳박사가, 식물학적 면을 다룬 3·4부는 廉교수가 주로 집필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무궁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이탈리아 등지에서는 가로수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사랑받는 무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柳박사는 말한다.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커스 린나에우스(Hibiscus Syriacus Linnaeus). 이집트의 히비스쿠스처럼 아름다운 꽃인데 시리아가 원산지라는 뜻. 확실히 히비스쿠스처럼 아름답기는하나, 원산지는 한반도 서남해안에서부터 랴오둥 반도까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한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無窮이 정식 명칭으로 처음부터 씌어졌는지 확실치 않다. 무궁화의 순수한 우리말은 「무우계」인 듯한데, 한자로는 無窮花, 無宮花, 無官花로 혼용되었다고. 「東國李相國集」 제14권 「고율시(古律詩)」 가운데 있는 무궁화詩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

「장로 문공과 동고자 박환고가 각기 무궁화의 이름을 가지고 토론하였다. 「無窮」이라고 이르는 편에서 「無窮」의 뜻을 설명하기를 이 꽃의 피고 지는 것이 참으로 무궁무진한 까닭에서 「無窮」이 좋다 하였고, 「無宮」이라고 이르는 편에서는 「無宮」의 뜻을 설명하되 옛날 임금님이 이 꽃을 너무도 사랑해서 예쁨을 자

랑하는 황후의 여섯궁전이 모두 빛을 잃을만큼 되었다고하니 「無窮」보다 「無宮」이 더 좋고 서로 고집하였다. 결국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못보고 서로 화해하는 뜻에서 중국의 옛 시인 백낙천의 시의 운을 따서 글 한 편씩을 지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권하여 그들과 흥겹게 어울렸다」

무궁화가 의학적으로, 식품으로서 효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일반인으로서도 흥미롭다. 「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 목근조(木槿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무궁화의 약성은 순하고 독이 없으며, 장풍과 사혈을 멎게 하고, 설사한 후 갈증이 심할 때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는데 졸음이 온다. 꽃은 약성이 냉하고 독이 없으며 적이질·백이질을 고치는데, 장풍·사풍·사혈에는 북아서 먹거나 또는 차처럼 달여서 무시로 마시면 낫는다」

「하얀 옷 슬기로운 우리 형제는/마음마다 그윽히 무궁화 송이/빛나는 삼일정신 이어 받들고/자유의 깃발 아래 쳐몰아 내리」처럼 작자를 알 수 없는 「무궁화」란 제목의 애국시도 적지 않다.

「무궁화는 7월 중순에서부터 10월 하순까지 꽃이 드문 철에 핀다. 아침에 퍼서 저녁에 지기 때문에 한 그루에서 일년 평균 3천송이 정도 피는 셈이지요. 꽃색깔, 모양도 단순하기 보다는 화려하며, 기르기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진딧물이 많다고 꺼려왔지만 지금은 종자개발이나 병충해 방제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동집필자인 廉道義교수의 말.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로마, 파리, 빈, 하이델베르크 등 무궁화 가로수 정원수의 모습을 소개한 「유럽에서의 무궁화 가꾸기」와 무궁화에 관한 주요 논문 색인이 첨가돼 있어 무궁화에 관한 종합도서의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한편, 나라꽃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인식시켜준다.